3613 이다희

조신의 꿈

① 조신의 욕망이 실현됨
② 세속적 욕망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함

— 작자미상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위해 사찰이나 암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설화

환몽구조 → 현실 – 꿈 – 현실

~~몽자류~~
~~몽유록계~~

인정한 구조를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 (구비전승) | 신화 (신성성) 전설 (진실성) 민담 (흥미성)

갈래 : 설화, 사원연기설화, 환몽설화

성격 : 환몽적, 불교적, 서사적, 교훈적

배경 : 신라시대 명주 날리군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환몽설화의 전형적 양식 (현실 → 꿈 → 현실)
(꿈꾸기 전의 절실한 소망→꿈속에서의 체험→깨어난 뒤의 각성)
② 액자 형태의 환몽구조 외화 → 내화 → 외화
③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 VS 역행적 구성(입체적 구성)
④ 유사한 성격의 사건 반복 제시→현실의 비극성 심화(ex.꿈 속 조신의 고난 부분)
⑤ 자연물에 비유→등장인물 생각 드러냄(ex.이슬, 벼락치기)

(문체 : 역어체, 설화체)
└ 번역할 때 쓰이는 문체

부부조서의 짝

발단	조신이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했지만 김흔의 딸은 배필이 있었음.
전개	배필이 있다는 것을 안 조신은 관음 앞에서 원망하며 울다가 잠에 듦.
위기	꿈에서 김흔의 딸과 결혼을 하여 자식 다섯을 둠.
절정	집이 가난하여 열 살 큰 아이는 구걸하고 다니다 죽었고, 김흔의 딸은 옛날의 기쁨이 근심의 시작이었다며 조신에게 이혼을 요구함.
결말	꿈에서 깨어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은 경험을 한 조신은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라는 절을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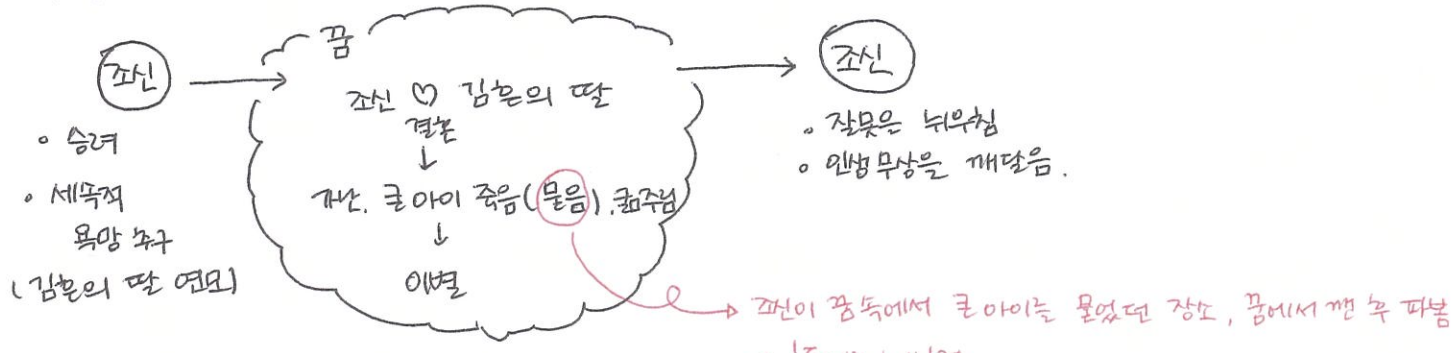
〈환몽구조〉

조신 → 꿈 → 조신

조신 ♡ 김흔의 딸
결혼
↓
가난, 큰 아이 죽음(묻음), 굶주림
↓
이별

조신
- 승려
- 세속적 욕망 추구 (김흔의 딸 연모)

조신
- 잘못은 뉘우침
- 인생무상을 깨달음.



조신이 꿈속에서 큰 아이를 묻었던 장소, 꿈에서 깬 후 파봄
→ '돌미륵' 발견
= 꿈과 현실이 연결됨, 꿈의 신빙성↑, 관음보살이 깨달음을 주기 위함의 의미 (종교적 의미)

진실성

- 조신의 가치관의 변모과정
  ① 세속적 욕망 추구
  ↓
  ② 꿈 속에서 세속적 생활에 대한 고통을 겪음.
  ↓
  ③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세속적 욕망을 초월함.

작자미상 < 조신의 꿈 >

3505 박다은

▶ 갈래: 환몽 설화
성격: 불교적, 환몽적(현실-꿈-현실), 비극적, 사찰 연기 설화
배경: 신라시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

▶ 특징

① 현실-외화, 꿈-내화 환몽 구조와 액자식 구성
② 인생무상의 주제를 드러내는 전기적 설화임
③ 꿈으로 현실세계에서 품었던 세속적 욕망이 헛된 것임을 깨달음
④ '돌미륵'과 '정토사'가 전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됨

▶ 환몽 구조와 액자식 구성

외화	현실	조신이 김씨 낭자와 인연을 맺기를 소원함	절실한 소망
입몽			
내화	꿈	김씨 낭자가 찾아와 함께 살기를 요청함(소망 실현) 가난이 부부와 자식에게 고통을 줌 결국 헤어지자는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임	꿈속의 체험
각몽			
외화	현실	세속적 욕망의 헛됨(인생무상)을 깨달음 사재로 정토사를 건립함	깨어난 뒤의 각성

▶ 전체 줄거리

세달사의 장원을 관리하던 승려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연모하게 되어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녀에게 배필이 생기고 이에 욕망이 좌절된 조신은 슬피 울다 잠이 든다. 꿈속에서 만난 김 씨의 딸은 조신을 사모하여 찾아왔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오십여 년의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조신의 가족은 가난으로 인해 유랑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김 씨의 딸은 조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조신은 김 씨의 딸과 헤어져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조신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우고 수행에 정진한다.

조신의 꿈

3410 유지원

1. 전체 줄거리

현실	주인공 조신은 낙산사의 스님으로 세규사라는 절의 땅의 관리인으로 파견되었다. 어느 날 자신의 관할 아래 지역을 둘러보다가 복숭아나무 아래 앉아 있는 김태수의 딸 김랑에게 첫눈에 반한다. 그 후로 불당에서 매일 김랑과 혼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기도를 올린 지 4년째 김랑은 다른 남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
입몽	김랑과 혼인에 실패한 조신은 관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대성통곡하다가 잠에 든다.
꿈속	조신의 **꿈속**에 김랑이 나타나 자신도 마음속으로 조신을 사모해 왔다고 고백을 한다. 둘은 부부의 연을 맺고 오십여 년의 세월을 보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삶을 산다. 둘 사이의 자식 다섯 중 큰아들은 굶어 죽고 늙고 병든 부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다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김랑은 조신과 이별을 고한다.
각몽	김랑과 헤어지고 걸어가는 길에 자신의 초라한 처지에 흐느껴 운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꿈**에서 깬다.
현실	꿈에서 깨 아침이 되어 보니 조신의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꿈에서 큰아들의 시신을 묻은 곳을 찾아가 파보았는데 그곳에서 **돌미륵**이 나온다.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책을 내놓은 후 돌미륵이 나온 자리에 정토사라는 절을 세워 수행에 정진한다.

2. 작품의 주요 POINT

#1 서사 구조

- 환몽 구조 : 현실 속의 주인공이 희망하던 바가 꿈속에서 실현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뒤 꿈에서 깨어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현실-꿈-현실'의 구조를 지닌다.
- 액자식 구성 : 소설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
  in 조신의 꿈) 조신의 꿈속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가 되는 액자 형태를 띤다.

#2 서술상 특징

- 서술자의 개입 :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끼어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서술 방법.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등을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감정 노출, 독자에게 말 걸기, 서사의 흐름 끊기, 사건의 요약 제시 등이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한다.
  in 조신의 꿈) 설화의 마지막 부분,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3 소재의 의미와 기능

-돌미륵 (수특 문제 1번 출제)

① 조신의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
② 조신의 꿈이 부처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소재

-꿈

① 김랑과 인연을 맺기를 바라며 관음보살에게 기도한 것에 대한 관음보살의 응답
② 조신의 현실 세계의 욕망을 성취하지만, 세속적 삶의 고통과 허망함을 깨닫는 계기가 됨.
③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이라는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문학적 장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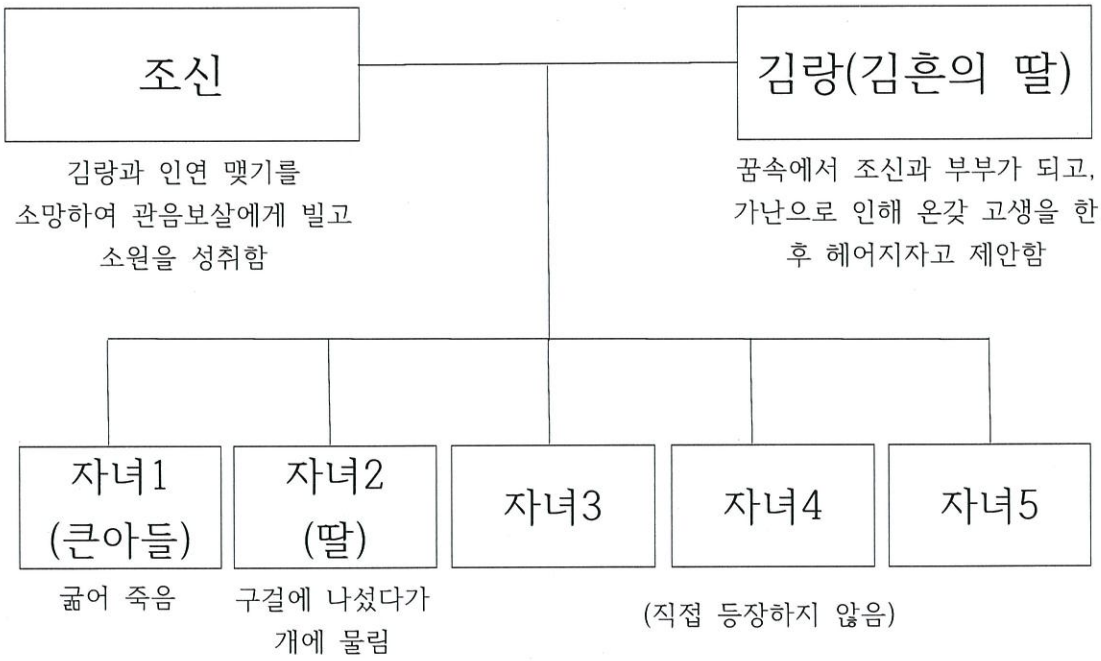
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수특 문제 2번 출제)

- 종교적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다양한 장치

인물	· 현실 : 사찰의 장원을 관리하는 평범한 승려 · 꿈 : 여인과 인연을 맺고 절을 떠남 > 가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결국 여인과 이별
갈등	여인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승려의 내적 갈등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대해 다룸.
현실성과 비현실성	· '세달사', '명주 날리군', '정토사' 등 구체적인 지명과 증거 : 서사에 현실성 부여 · '돌미륵' = 현실과 꿈을 이어 주는 매개체이자 비현실적 증거물 : 조신의 꿈이 부처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드러내어 신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사에 사실성을 부여함.
종교적 주제 의식	· 가난, 자식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한 깨달음 : 욕망은 번뇌의 근원이며 덧없고 허망한 것임. · 꿈을 꾸게 하고,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한 주체가 부처라는 깨달음 > 부처의 위대함을 확인 > 조신이 불도에 정진하게 됨.

4. 작품 정리하기

- 갈래 : 설화, 전설 >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가 X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 남가일몽(南柯一夢) : 덧없는 꿈이나 한때의 부귀영화
- 의의 : 몽자류 소설의 근원이 되는 설화.
  > 김만중의 '구운몽' (꿈에서의 체험이 현실 세계에서 품었던 세속적 욕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됨.)
- 인물 관계도



3316 최슬기

「조신의 꿈」

1. 핵심 정리 및 특징

갈래	설화(사찰 연기 설화), 전설
성격	불교적, 환몽적, 서사적, 교훈적
배경	신라 시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구성	액자식 구성, 환몽 구조(현실→꿈→현실)
주제	속세의 욕망과 집착에 대한 무상함,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
특징	1.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냄 2. 외부 이야기(현실) 속에 내부 이야기(꿈)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함 3. 절의 건립 내력을 다루고 있는 사찰 연기 설화에 속함 4. '돌미륵'과 '정토사'가 전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됨

* 사찰 연기 설화: 절을 세운 유래에 관한 설화
* 불교적: 불교의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거나 불교와 관련된 것
* 환몽적: 허황된 꿈

2. 주요 등장인물

조신	하룻밤 꿈을 통해 평생을 경험한 승려. 김낭자를 열렬히 사모하여 관음보살에게 그녀와 사랑을 맺게 해 주기를 간청할 정도로 세속적 욕망을 강하게 품은 인물. 그러나 꿈속에서 가난하고 헐벗어 비참한 생활을 경험한 후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됨.
김흔의 딸(김낭자)	조신의 꿈에 나타난 여인. 김흔의 딸로 실제로는 조신과 아무 연분을 맺은 적이 없음. 그러나 조신의 꿈에서는 함께 도망하여 40여 년을 살며 가난과 자식을 잃는 비참한 생활을 함. 현실에서는 조신으로 하여금 애욕을 품게 한 대상이자, 꿈속에서는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함.

3. 줄거리

세달사의 장원을 관리하던 승려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연모하게 되어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녀에게 배필이 생기고 이에 욕망이 좌절된 조신은 슬피 울다 잠이 든다. 꿈속에서 만난 김씨의 딸은 조신을 사모하여 찾아왔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십여 년의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조신의 가족은 가난으로 인해 유랑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김씨의 딸은 조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조신은 김씨의 딸과 헤어져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조신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우고 수행에 정진한다.

외화 (현실)	욕망의 좌절	승려 신분으로 태수 김흔의 딸과는 결연을 소망하지만, 이는 신분의 차이로 실현되기 어려운 욕망임. 결국 김흔의 딸은 다른 남자와 혼인하고 조신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다 선잠이 듦.
▼ 입몽		
내화 (꿈)	욕망의 투영	현실 세계에서 사모했던 김흔의 딸이 찾아와 조신에게 사모의 정을 표현하고 부부의 연을 맺자고 말함
	욕망의 충족	김흔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함께 살며 다섯 자녀를 둠
	욕망의 좌절	가난으로 인해 걸식하고 유랑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감. 결국 조신과 김흔의 딸은 헤어짐을 선택함
▼ 각몽		
외화 (현실)	깨달음	잠에서 깬 조신은 자신이 지녔던 애정, 즉 세속적 욕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운 뒤 수행함

4. 꿈의 역할 및 '돌미륵'의 역할

꿈	조신이 꿈에서나마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게 되는 소망을 실현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별을 하는 것으로 꿈을 마치게 됨 결국 꿈은 조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장치임
돌미륵	조신이 꾼 꿈이 부처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며 꿈과 현실을 이어 주는 매개체임

<조신의 꿈> 작자 미상

1. 핵심 정리

갈래 : 사찰 연기 설화, 환몽 설화, 전설
성격 : 서사적, 교훈적, 불교적, 환몽적
배경 : 시간 - 신라시대 때 / 공간 - 조신의 현실과 꿈
=> 신라하대의 현실 : 혼란한 사회 속에서 백성들은 경제적 궁핍을 겪으며 현실을 고행의 세계로 인식, 내세에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의의 : 몽자류 소설의 근원이 되는 설화
주제 : 인생의 무상과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

2. 줄거리

현실 : 옛날 신라 때 강원도 날리군에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 조신이 그곳의 태수 김흔의 딸(김 낭자)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는 몇 년 동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서
↓ 김흔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빌었으나 태수의 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 조신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불당에서 잠이 들었다.

꿈 : 그런데 꿈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태수의 딸이 자신을 찾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 둘은 다섯을 낳고 살아가게 되지만 가난으로 딸 하나가 굶어 죽어 해현령에 묻는 등
↓ 가족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아내의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제안에 따라 이별하게 된다.

현실 : 꿈에서 깨어난 조신은 허망해진 마음으로 해현에 가서 아이를 묻은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어, 그 돌미륵을 근처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하였다.

3. 등장인물

조신 : 불도를 닦는 승려.
김흔의 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후로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그녀와 살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비는데 꿈속에서 그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산다. 꿈속의 고달픈 삶을 통해 불교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김 낭자 : 아름다운 여인으로 조신이 한눈에 반하게 된 인물.
조신의 꿈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결국 조신과 헤어진다.

4. 특징

①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 액자식 구성
② 꿈속의 구체적 사건을 통해 주제 암시
③ 종교적 깨달음 (인생의 무상과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④ 신라 하대(下代의) 상황 반영
⑤ 집약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갖는 주요 모티프로 사건 전개
⑥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

5. 핵심 소재

꿈 : 조신의 욕망을 반영, 조신에게 인생의 고통이 탐욕과 집착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함
돌미륵 :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꿈에서 겪은 일이 단순히 꿈이 아니고 종교적인 깨우침이 있다는 것을 상징

※ 인생의 세속적 욕망은 한순간의 꿈이요, 고통의 근원이니 집착을 버려야 한다 ※

'조신의 꿈' 작자미상

3112 손아름

주제-속세의 욕망과 집착에 대한 무상함, 인생무생에 대한 깨달음
갈래-사찰 연기 설화, 전설
배경-시간적:옛날 신라 시대
-공간적:명주 날리군 세달사, 정토사
성격-불교적, 환몽적, 서사적, 교훈적
시점-전지적 작가 시점
구성-액자식 구성, 환몽 구조(현실->꿈->현실)

등장인물

-조신:승려이며, 꿈속에서 가난하고 헐벗어 비참한 생활을 경험한 후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됨
-김 씨의 딸:현실에서는 조신이 애욕을 품은 대상이자, 꿈속에서는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을 일깨운 역할

줄거리

현실-세달사의 장원을 관리하던 승려 조신은 태수 김 씨의 딸을 연모하게 되어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녀에게 배필이 생기고 이에 욕망이 좌절된 조신은 슬피 울다 잠이 든다.

꿈-꿈속에서 만난 김 씨의 딸은 조신을 사모하여 찾아왔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50년의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조신의 가족은 가난으로 인해 유랑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김 씨의 딸은 조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조신은 김 씨의 딸과 헤어져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현실-조신은 자신이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우고 수행에 정진한다.

특징

1)'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인생무상의 주제를 드러냄
2)외부의 이야기(현실) 속에 내부의 이야기(꿈)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함
3)특성 소재를 활용하여 꿈과 현실을 매개하면서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함
4)요약적인 서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냄
5)절의 건립 내력을 다루고 있는 사찰 연기 설화에 속함